

LA한국교육원, 2019 미주한인의 날 기념 미술대회

LA한국교육원(원장 오승걸, 이하 교육원)이 한인 이민 116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자라나는 한인 23세들의 정체성 확립과 한국인으로서의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2019 미주 한인의 날 기념 미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3회째이다.

올해 이 대회의 주제는 'Korea: Yesterday Today and Tomorrow-With Focus on Korean History Culture and Spirit (한국: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한국의 역사 문화 정신을 중심으로)'이며 소재나 표현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참가 대상은 유치원부터 12학년생이며,

작품은 10월 12일(우편 제출 시 10월 12일 소인까지 유효)까지 로스앤젤레스한국교육원(680 Wilshire Place, #200, Los Angeles, CA 90005)으로 제출해야 한다. 작품 제출 시 작품 뒤에 신청서와 작품설명서를 양옆으로 나란히 테이프로 붙여서 보내야 한다.

시상은 대상(500달러), 학년별 1등(100달러), 2등(50달러), 입선작 약간등이다. 이외 타 기관·단체의 특별상 시상으로 세리토스시청상(대상 및 1,2등), 미주국국포로송환위원회장상(300달러),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장상(300달러), 홍익민화연구소장상(200달러), 미주한인재단상(100달러, 총5명)등이 주어진다.

당선작은 내년도 달력 제작에 활용된다.

심사결과는 11월 2일 교육원 홈페이지(www.kecla.org)를 통해 발표하며 시상식은 내년 1월 12일 교육원에서 열린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213) 386-3112/3113
kecla@gmail.com

지난해 '미주한인의 날 기념 미술대회' 대상작 김아현(Troy High School 10학년의 "Shooting to Achieve")



'광복 73주년' 기념 다양한 행사 열려 ... 기념식, 사진전 등



▲ 지난해 LA한인회 주최로 열린 제72회 광복절 경축식 모습

LA 한인회(이하 한인회)는 광복절인 15일 LA한인회관에서 현기식을 거행

한다. 한인회는 또 나성한인 연합장로교회에서는 일제 전쟁범죄 사진 및 나라사랑 사진 공모전 입상작 전시회, 광복절 기념식 및 축하공연과 독도와 강치 알리기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LA시 의회가 대한민국 광복 73주년을 앞두고 광복적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광복절 기념 선포식을 거행' 하

기도 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목사회(회장 남상국)가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8·15 경축 찬양제를 웨스트민스의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목사 남성수,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11일 개최했다.

남상국 OC목사회장은 찬양제 개최 전 "일본의 압제 하에 2000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투옥되고 50여 명이 고문으로 옥중에서 순교했다."라며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찬양으로 되새기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이 찬양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찬양제는 1부 예배에 이어 아리랑합창단, 실비치 남성중창단, 15명의 한국군악대 출신들로 구성된 아무르 색소폰 연주단, 은혜한인교회 은혜성가단, 위트컴합창단, 레위남성성가단 등이 무대에 올랐으며 프로그램 사이사이 광복절에 관한 동영상도 상영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럭키타이어

여름맞이 감사 대 세일

HANKOOK KINERGY ST H735 P195/65R 15 \$65.00 Each



브레이크 체크 업 Free
얼라이먼트 체크 업 Free



NEW TIRES
OIL CHANGE
BRAKES

(714)530-2301

13128 Magnolia St. #A
Garden Grove, CA 92844

